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벌·개미 등 여름철 해충 방역

✎ 우정연 기자 | ⓒ 승인 2025.07.25 14:48

전 관광시설 대상...이용객 보호 총력



해충 방역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 관광시설에 해충 방역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.

이번 방역은 벌, 개미, 진드기 등 여름철 활동이 활발한 해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. 시설물과 산책로, 주차장 등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.

이 외에도 주기적으로 평창자연휴양림을 비롯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에 힘쓰고 있다.

특히 전문 방역업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해충 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.

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“여름철 해충은 벌 쏘임이나 진드기 매개 질환 등 각종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”며 “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우정연 기자 wooj2705@naver.com